



# 협 회

## 소 식

### 이헌기 노동부장관, 당 협회 내방



○ 이헌기 노동부장관은 지난 8.5 당협회를 방문하고 조규상 회장을 비롯, 협회 실행이사진과의 회합에서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살펴보고 협회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보건활동의 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○ 이날 조규상 회장은 협회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설명하고 일부 어려운 점들에 대한 점진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, 이헌기 장관으로부터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받기도 하였다.

○ 이헌기 장관은 앞으로 기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협회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협회 회원자격의 문호개방이 요구된다는 자문과 함께 협회의 건의사항 및 산업보건사업 추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이헌기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과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산업국가에서 이에 대한 학문이 강조시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향후 의과대학에 산업보건과정의 신설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젊은 후배들을 이 분야에

서 연구케 하여 성장시킴으로서 ILO, WHO 등 세계적인 기구에 진출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기구에 국가대 국가로서의 진출도 요망된다고 설명하였다.

○ 아울러 이헌기 장관은 협회 운영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직업병에 대해 충분한 Back data가 준비되어 가장 심각한 질병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들의 대책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당 협회가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근로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보건관리방안으로 제시된 집단보건관리를 공단지역 중심으로 하여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 등은 밝히고

○ 또한 당 협회내에 구성되어 있는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비롯하여 산하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협회를 구심점으로 업무의 중복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것 등을 당부하였다.